전남 농산물 수출국 1위 일본…미주권, 중국 제치고 2위

전남농협 8월말 수출 현황 분석…260억원 전년비 56.7% 증가
일본 773만달러·15.3%↑…미주권 497만달러·172% 급증
미국 수출 효자품목 배·유자…한한령에도 중국 수출액 늘어

전남지역 농협들의 농수산물 수출이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가운데, 미주권 수출액이 3배 수준으로 뛰면서 주요 수출국 2위에 올랐다.

1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8월 전남농협 농축수산식품 수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남지역 농협들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1876만6000달러(260억8000만원)로, 전년 같은 기간(1197만3000달러)보다 56.7%(679만3000달러) 증가했다. 수출 물량은 전년보다 72.6%(2320t) 증가한 5517t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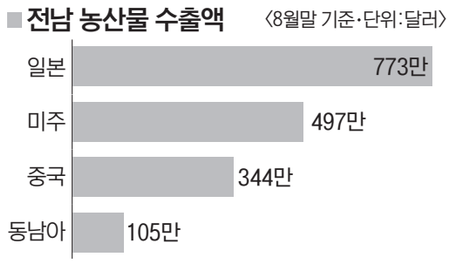
올해 연말까지 전남농협이 세운 수출액 목표는 2820만달러로, 8월 말 기준 66.5%를 달성했다.

전남지역 농산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코로나19 봉쇄 등의 영향으로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서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전남농협 농산물 수출액은 지난 2020년 1480만3000달러(수출량 4790t)에서 지난해 1197만3000달러(〃 3197t)로 19.1% 급감했지만, 올해 반등했다.

전남 농산물 수출의 41.2%는 전복과 파프리카 등을 주로 수입하는 일본이 차지했다.

올해 8월 기준 일본 수출액은 773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670만5000달러)보다 15.3%(102만5000달러) 늘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미주권'과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을 아우르는 '동남아시아', '호주권'은 전년과 비교하면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미주권 수출액은 전년의 2.7배 수준으로 뛰면서 지난해 2위 수출국 중국을 제쳤다.

올해 전남 농산물의 미주권 수출액은 496만7000달러로, 지난해(182만3000달러)보다 172.4%(314만4000달러)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위 중국을 제치고 올해 두 번째로 수출액이 큰 규모다.

중국권(홍콩·대만·몽골 포함) 수출액 역시 중국 내 한류를 막는 '한한령'에도 지난해 217만5000달러에서 올해 343만6000달러로, 58.0%(126만1000달러) 늘었다.

이외 수출액 증가율은 동남아 123.9%(2021년 46만8000달러→올해 104만9000달러), 호주권 107.8%(16만8000달러→35만달러), 유럽권 81.0%(58만9000달러→106만6000달러) 순으로 높았다.

전남 배는 농협 수출액 30%를 차지하는 1등 효자품목이다.

미국과 대만, 베트남, 홍콩, 호주가 주요 수출국인 배 품목은 지난해의 3배(215.6%↑) 수준인 549만9000달러 상당 수출됐다.

미국이 가장 '큰손'인 유자 가공식품은 지난해보다 60.5% 증가한 339만달러 어치 팔렸다.

배와 유자 가공품에 이어 전남농협 수출 10대 품목에는 3위 전복(일본, 331만9000달러), 4위 파프리카(일본·홍콩·중국, 303만9000달러), 5위 차류(베트남·미국 등, 58만1000달러), 6위 토마토(일본, 56만1000달러), 7위 참다래(일본·미국, 27만7000달러), 8위 김치류(미국·독일, 23만5000달러), 9위 표고버섯(일본·미국, 22만달러), 10위 건해산물(호주, 21만8000달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농협 수출액은 전년보다 1.3% 감소했는데, 전남은 9개 도(道)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남(56.7%)에 이어 충북(48.2%), 제주(21.7%), 경북(16.8%), 경기(14.0%), 전북(12.6%), 강원(0.5%)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보다 수출액이 감소한 지역은 충남(-9.1%)과 경남(-17.1%) 2곳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장 나눔 배추 모종 정성껏 심어요"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 청년부와 고향생각주부모임 회원 등 30여 명은 최근 광주시 북구 월출동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위한 배추 3000포기 모종을 밭에 심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하남농협, 고려인마을 이민 여성에 생필품

광주 하남농협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고려인마을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 전달에는 하남농협 여성조직인 고향주부모임과 농가주부모임, 부녀회 회원 20명이 동참했다. 전달 기념 행사에는 나왕수 하남농협 조합장과 신조야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민 여성 가정 150세대에 전할 정육·삼계탕 꾸러미와 라면 등을 기부했다.

나왕수 하남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축산물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일손 부족 전남…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 7.9% 그쳐

체류 기간 연장 등 적극 검토해야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남 농·어촌에서는 470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했지만 이의 7.9% 수준인 377명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0개 시·도(세종 포함)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만3391명이었지만, 5891명만 입국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이 17.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478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했지만, 공급률은 7.9%(377명)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전남 신청자는 447명이었지만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신청 633명 가운데 2.5% 수준인 16명만 입국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전남 수요가 지난 한 해 6배 수준인 3707명으로 불어났다. 이 기간 신청 수요의 9.7%인 361명이 입국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전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7.9%)은 전국 평균(17.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10개 시·도 가운데 제주 0%(616명 중 0명)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은 강원(33.6%), 전북(22.9%), 세종(20%), 충북(17.5%) 등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장 5개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수요 인원을 신청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최장 5개월인 체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가축 전염병 막아라…축사 2140회 소독

추석 전후 일주일동안 집중 방역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추석 명절 전후 일주일 동안 전남지역 축사에서 2140차례에 걸친 방역 소독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축사 방역 소독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치러졌다.

이번 방역은 가축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농협 가축 공동방제단은 이 기간 전남 각 시·군에서 양돈 농가 324회, 소 1615회 등 총 2140회에 걸쳐 축사 진출입로를 소독했다.

축산 농가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내·외부 청소와 일제 소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가축 전염병의 발생은 축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난"이라며 "축산 농가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일제 소독 활동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유흥적합)

▶ 중심 상업지구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6억8천

(보3천,월수익 380만 ,융 4억)
(유흥가능 , 사무실 , 빠 , 룸 ,홀덤바)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월수익- 720만
● 연수익 - 9000만

● 매가 - 14억5천
(융자 7억)

신축원룸 (공실없음)

경매교육[기초반 특수반]

*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2614-9801